

## 증례: Cefotiam induced occupational contact urticaria syndrome

전남의대 피부과  
정호주

**환자:** 26세, 여자

**주소:** 내원 1개월 전부터 발생한 간지럼증을 동반한 발진성의 팽진과 구진을 주소로 내원함

**현병력:** 피부 병변은 주로 항생제를 다룬 후 발생하며, 손에서 얼굴로 번지는 양상을 보임. 국소 도포제로 치료하였으나 큰 호전은 없으며, 최근 상기 증상을 일으킬 만한 미용적 변화는 없었음.

**과거력:** 금속류 (반지, 목걸이, 벨트), 화장품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음.

**직업력:** 간호사로 3년째 재직 중(항생제를 많이 다룸)

**검사실 소견:** 혈액검사상 특이사항은 없었음.

### 피부반응시험

- ① standard patch test에서 금속류인 nickel (1+), 화장품 원료에 주로 쓰이는 epoxy resin (2+), wood alcohol (1+), Kathon CG (1+)소견 보임
- ② cefotiam (antibiotics)를 사용한 patch test에서 20%, 2%, 0.02% 용액에 양성소견(1+) 보임
- ③ cefotiam을 사용한 pin-prick test에서 양성소견(2+) 보임

**치료 및 경과:** 피부반응시험 후 anti-histamine medication을 시행하였으며, 이후 증상 호전을 보였고, 1달 후 간호사직을 그만둔 후 현재까지 증상 재발은 없음

## 리뷰: Cefotiam induced occupational contact urticaria syndrome

전남의대 피부과  
정호주

### Contact urticarial syndrome이란?

특정 물질이 접촉한 부위에 부종 및 발적을 동반한 두드러기양 반응이 발생 시 contact urticaria 라고 정의하며, anaphylactoid response등을 포함한 전신형 반응이 발생 시 contact urticaria syndrome이라고 말함. 이는 Type I and/or Type IV hypersensitivity에 매개되어 발생하며, 다음과 같이 단계를 구분함

- Stage 1 : local urticaria or dermatitis on the contact area
- Stage 2 : generalized urticaria
- Stage 3: extracutaneous involvement (rhinoconjunctivitis, asthma, orolaryngeal & GI symptom)
- Stage 4 : anaphylactoid shock

진단: 임상양상 및 피부반응시험(patch & pin-prick & intradermal test)을 통해 진단  
아토피 질환, skin allergy와 같이 constitutional factor를 동반할 때 발생률이 높음

### Cefotiam (CTM)

2세대 cephalosporin으로 contact urticaria syndrme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항생제임. 주로 간호사등과 같은 병원직 종사자에게서 흡입 및 피부 접촉을 통해 증상 유도 및 발현함.

<cefotiam에 의해 contact urticaria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>

- ① 강력한 피부 자극물질로 피부 습진을 유발하여 물질의 투과를 용이하게 하여 sensitization이 용이함
- ② 항생제를 담고 있는 용기(vacuum vial)의 특성상 dissolved solution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쉬움

### 예방

- ① 회피요법 -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으로 시행
- ② Latex glove & mask - 효과적이나 latex glove allergy에 대해 미리 확인해야 함
- ③ hyposensitization - anaphylactoid reaction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후에 시행

**증례에 대한 고찰:** 항생제에 의한 contact urticaria syndrome은 주로 간호사와 같은 병원직 종사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cefotiam이 가장 흔한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. 아토피 질환이나 금속, 화장품 등에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잘 발생하며, 환자 과거력에 대한 주의 깊은 고찰 및 피부 반응검사 등을 통해 이 질환에 취약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으며, 진단 또한 가능하다. 또한 피부 반응검사를 통해 cefotiam과 교차반응을 통해 약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항생제를 구별하는 것이 항생제로 인한 contact urticarial syndrome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. 특히 피부반응검사는 약물을 투약하는 환자보다 직업적으로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이 있는 군, 평상시 피부 알레르기 및 아토피 질환이 있는 군에서 더욱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